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 스크린 속 미국은 '통네북'

## 한·미·일 영화, 앞다투어 미 정부 비난... '괴물', '빅 리버' 등



9·11 테러의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음모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각-각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국내외 영화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괴물'은 시사회 직후부터 '반미영화'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반미 정서를 담아냈고, 일본 영화 '빅 리버(Big River)', 개봉 예정인 미국 영화 '폴리스 비트(Police Beat-사건)'와 환경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은 까봉과 미국 정부에 굶지 않는 시선을 던진다.

'괴물'은 미군이 버린 독극물로 인해 한강이 오염되면서 괴물이 탄생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거기에 미국 정부가 괴물과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고, 한국에 괴물 바이러스 퇴치제 '에이전트 엘로'를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환경단체와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된다.

8일 개봉되는 '폴리스 비트'는 영화 속에서 미국 정부와 부시 대통령에 대해 힐난한다. 과속 자전거를 단속 중이던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의 시애를 경찰관 지에게 자전거를 탄 남자의 대답은 가관이다.

리츠린 공원을 부차하라는 지의 말에 "월말이라 할당량 채워야 하는냐?"라며 뼈뺀 시선으로 말을 시작한 남자는 "이렇게 거꾸들이

돈이 전쟁에 쓰이는 것은) 기막힌 세금 낭비"라면서 "(미국은) 거대 전쟁 기계가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한다.

8월 중순 개봉했던 오다기리 조 주연의 일본 영화 '빅 리버' 역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빅 리버'는 미국 사막지역인 모뉴먼트 밸리(Monument Valley)를 배경으로 일본인 다테이, 파카스탄인 알리, 미국인 세라 등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세 사람의 우정을 다룬 영화. 모뉴먼트 밸리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여행 중이던 이들은 야간 운전 중에 경찰의 과잉검문을 받아 "미국인들은 자기를 탐대로 하려고 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

14일 개봉 예정인 '불편한 진실'은 환경문제로 미국 정부에 화살을 겨눈다.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에서 고어는 "미국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LIVING TV** 김현영의 여행시상(오후7시 50분)  
여행 마니아 김현영이 일본을 찾았다. 시코쿠 지방의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카가와현. 이 곳의 대표적 명승지 리츠린 공원을 찾아가본다. 리츠린 공원은 일본만의 정교하고도 섬세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현영은 이곳에서 여행이라는 인연으로 만나는 소중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게 된다. 공원을 나선 뒤 찾아간 곳은 쇼도시마

섬. 버스를 타고 가는 커다란 패리호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다. 일본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올리브 공원을 찾아가 김현영은 지중해를 옮겨 놓은 듯한 이국적이고 멋진 광경에 푹 빠지고 만다. 올리브 공원에서 지중해의 푸르름을 만끽했다면 쇼도시마 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칸카이 계곡으로 발길을 옮길 차례. 케이블 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쇼도시마 섬의 자연을 만끽한다. 해가 저물어 가는 세토내해를 바라보며 오늘 여행의 뒷이야기를 전한다.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창업 24년, 사석점(동구청 남동생당사) (062) 227-9940, 충장점(충파근거리) (062) 225-9970

## 케이블·위성TV 7일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BS1, KBS KOREA, EBS2, KBS KCTV, CH5 KCTV, CH5 CMB 광주방송, EBS2, KBS KCTV, CH5 KCTV, CH5 CMB 광주방송, EBS2, KBS KCTV, CH5 KCTV, CH5 CMB 광주방송)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